

#### (6.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찬사

정상 여러분, 그리고 대표 여러분,

오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장장 세 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였습니다.

케냐 마사이 사람들의 속담에

“지혜는 불씨처럼 이웃에서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프리카와의 협력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모색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나누어 주신

‘지혜’ 덕분에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찬은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셰프들이

아주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조화롭게 엮어,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를 음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음식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특별한 축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적도기니의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 대통령님의 생신이 바로  
내일(6.5)입니다.

오비앙 대통령님의 생신은 적도기니의 최대 국경일(President Day)이라

고 들었는데,

특별한 날에 한국을 방문해 주신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고의 포르 냐싱베 대통령님께서서는 모레(6.6)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한국에서 맞이하시는 생신이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생신을 축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생신을 맞이하신 두 분의 정상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오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